

북한 지도자 리더십 비교*

: 성장 과정 및 사상적 기반, 정당성, 리더십 특징을 중심으로

임재천(고려대학교)

논문 요약

본 논문은 김일성을 포함하여 북한을 통치해 온 세 지도자들과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그들의 성장 과정과 사상적 기반, 정치적 정당성, 리더십 특징에 주목한다. 리더십을 '특정한 환경 하에서 지도자가 자신(혹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지자를 설득하고 동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지도자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장 과정,' '사상,'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성장 과정, 사상, 정치적 정당성과 같은 요인들은 '리더십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북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비교한다. 이와 같은 리더십 비교 연구는 북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에서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 정치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 리더십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리더십

I. 서론

2011년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7일 오전에 김정일이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임을 예고하는 소식이었다. 이후 북한은 김정일이라는 절대적 위상을 지닌 지도자의 죽음이 가져올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계자 김정은에게로 권력승계를 신속하게 진행시켰다. 19일부터 10일 동안 김정일 애도기간을 설정하고, 애도기간 직후 12월 30일에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다. 2012년 3월 25일까지 100일 동안 추모기간을 준수하였고, '100일 상(喪)' 후 4월 중순 제4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마무리 지었다.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북한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였고, 제1비서직을 신설하여 김정은으로 하여금 맡게 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일이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신설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김정은이 맡았다. 이로써 김정은은 군·당·정 순으로 최고 직위를 맡음으로써 권력 공고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북한 연구에 있어서 지도자 연구의 중요성은 북한 내부에서 차지하는 지도자 위상에 비례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생전에 절대적인 지도자로서 북한을 통치하였고 주민들 위에 군림하였는데, 모든 북한 시스템이 그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북한 내부에서 지도자의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개념이 수령인데, 이 개념은 '혁명적 수령관'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혁명적 수령관'에 의하면, 수령은 수령·당·대중으로 구성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로서 생명체 활동을 지휘하는 중심이며 대중은 당을 통하여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된다. 또한 수령은 대중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절대적 존재로서, 대중은 당을 통하여 수령의 지도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있다.¹⁾ 이 '혁명적 수령관'은 북한

* 본 논문은 2014년도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특성화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된 논문이다.

지도자 지위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 인식론적 기초가 되고 있으며, 당이 주민들에게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한에서 이 수령이란 용어는 주로 김일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수령과 그의 후계자들(김정일과 김정은)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상을 지닌다.²⁾ 따라서 수령 직위를 승계하는 문제는 어떤 정치적 문제보다 중요시되는 데, 이는 “후계자를 올바르게 선정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 나라와 인민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문제”라는³⁾ 김일성의 인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은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첫째가는 덕목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도덕의리”를 꼽았는데,⁴⁾ 이는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최우선 원칙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 원칙에 따라 김일성은 김정일을, 김정일은 김정은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했는데, 이로써 북한은 (현대 국가들 중) 비(非)입헌군주체로서 유일하게 두 번의 세습을 통해 권력을 승계한 국가가 되었다.⁵⁾

이 글은 김일성을 포함하여 북한을 통치해 온 지도자들과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비교연구는 그들 리더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 정치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 리더십을 이해함으로써 정권의 정책적 함의를 이해하는데도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북한 지도자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필자의 관점 제시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 지도자들의 성장 과정과 그 사상적 기반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정치적 정당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는 북한 지도

자들이 권력 강화를 위해 어디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찾고자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지도자들의 리더십 특징들을 분석해 볼 것이다.

II. 분석 관점

지도자는 대부분 집단들에 존재하며 집단생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지도자에 대한 연구는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지도자 연구는 ‘개인’에 대한 연구로써 분석 수준에 있어서는 미시적 연구에 속한다. 개인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지도자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혹은 사상), 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지도자 연구는 고립된 개인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환경(혹은 지지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개인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이해도 추가되어야 한다. 즉, 지도자 연구는 지도자 개인의 가치관, 행태,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이 글에서도 북한 지도자들의 사상, 행태, 그리고 대내외적 국가 환경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리더십은 연구가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리더십을 지도자의 활동(activity)으로, 지도자와 대중(혹은 지지자)의 상호작용 과정(process)으로, 혹은 지도자의 능력(ability)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⁶⁾ 하지만 다양한 리더십 정의에도 불구하고 모든 리더십 정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필수 요인들이 존재한다. 첫째가 지도자와 대중이라는 ‘행위자’의 존재이다. 둘째, 이러한 지도자와 대중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지도자와 대중이 상호작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존재한다. 즉,

1)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8』, 조선노동당출판사, 1998, pp. 447~448.
 2)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평양: 문예출판사, 1991, p. 425.
 3)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8』,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9, p. 308.
 4) 위의 책, p. 309.
 5)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와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 구체적 비교는 Lim, Jae-Cheon, “North Korea’s Hereditary Succession: Comparing Two Key Transitions in the DPRK.” *Asian Survey*, vol. 52, no. 3, 2012, pp. 550~570.

6) Sadler, Philip, *Leadership*. 2nd ed. London: Kogan Page, 2003, p. 5.

모든 리더십 정의에는 행위자·상호작용·목표라는 세 가지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면, 대부분 리더십 정의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소수의 연구자들은 지지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지도자와 지지자의 상호작용의 특성, 목표의 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다양하게 명명되기도 한다.⁷⁾

이 글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환경 하에서 지도자가 자신(혹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지자를 설득하고 동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한다. 그럼 북한 지도자의 리더십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대내외적 상황에 직면한 북한 지도자가 자신(혹은 북한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을 설득하고 동원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 지도자의 '다양한 활동'이 뚜렷하게 반복되는 경우, 그 뚜렷하게 반복되는 행태를 우리는 그 지도자의 리더십 '특징(혹은 스타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⁸⁾ 리더십 연구에서 지도자의 행태 특징을 분석하는 이유가 이 '특징'에 지도자의 성격, 가치관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지도자의 행태 특징들을 분석하면서 그의 성격과 가치관을 유추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국가의 지도자를 연구할 때는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지도자의 행태를 발견함으로써 리더십 특징들을 분석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리더십을 정의하고, 리더십 특징들을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특징들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도자의 행태 특징들도 환경적 제약이나 상황에 따라, 혹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지도자의 행태도 상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지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터커(Robert C. Tucker)는 지도자를 "집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지도자를 그가 하는 주요 기능에 따라 정의한 것이다. 그는 이 '방향 제시' 기능을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단계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단계이다. 다음 단계가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지자를 동원하여 해결책을 실행하는 단계이다.⁹⁾ 터커의 정의와 앞에서 설명한 리더십 정의를 기본으로 지도자에 대해 정의해 본다면, 지도자란 '집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구성원을 설득하고 동원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여기서 '집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상황에 따라 비전, 목표, 문제 해결책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북한 지도자들은 모두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원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하고 있는 인물'이란 의미이다. 예를 들면,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자신이 북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강성대국'이란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했고, 그들에게 강성대국 건설 때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인내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지도자는 어떤 국가의 지도자인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지도자의 행태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국가 지도자의 경우는 그 국가의

7) 예를 들면, 번즈(Burns)는 리더십이 '리더와 지지자들 사이에 목적의식적이고 집단적인 상호작용'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 리더십의 특성을 크게 변형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과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으로 분류하였다. Burns, James M.,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8.

8) McCauley, Cynthia D., "Successful and Unsuccessful Leadership." In John Antonakis, Anna T. Cianciolo, and Robert J. Sternberg, eds., *The Nature of Leadership*.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04, p. 204.

9) Tucker, Robert C., *Politics as Leadership*. Columbia, Missouri: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1, pp. 15-19.

정치시스템, 지배 이데올로기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민주주의국가 지도자와 독재국가 지도자의 행동 양태는 동일할 수 없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지도자의 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에 따라 제약을 받고, 정기적인 선거에 의해 지도자 교체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반면 독재국가의 지도자는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비교적 적게 받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형식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권력을 유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도자를 ‘왕조적 전체주의체제(dynastic totalitarianism)’ 지도자라고 간주한다.¹⁰⁾ 전체주의체제란 정치사회적 다원성이 부정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적 조직에 망라되어 사상적으로 통제되며, 정치권력이 일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독재체제의 극단적인 형태를 말한다.¹¹⁾ 연구가들에 따라 전체주의에 속하는 국가들의 범주가 다양하지만, 필자는 스탈린의 소련과 히틀러의 독일이 전체주의의 사례라고 간주한다. 북한의 전체주의는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1950년대 권력투쟁을 통해 김일성의 일인 절대권력 확립을 통해 완성되었다. 이러한 ‘전체주의체제’는 김일성-김정일 권력세습과 김정일-김정은 권력세습을 통해 ‘왕조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자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왕조적 전체주의’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10) 북한을 ‘전체주의체제’로 보는 대표적 연구는 최완규와 정성장이다.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경남대 북한대학원(편), 『북한연구방법론』, 한울, 2003, pp. 40-44; 정성장,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와 성격.”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2호, 1999, pp. 251-273. 다수의 북한연구가들은 북한을 전체주의체제보다는 ‘수령제’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을 수령제로 설명하는 연구의 예는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연구』, 서울: 선인, 2005;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 2014, pp. 29-64; 이승열,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 수령체제의 전환 방향: 엘리트의 정책선택을 중심으로.” 『전환기 한반도 정치경제의 동향: 구상·정책·실천』,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2012년 12월 19일), p. 219. 필자는 전체주의체제와 수령제를 상이한 체제로 간주하기 보다는 수령제를 ‘전체주의의 북한식 변이’로 간주하며, 이러한 전체주의체제는 권력 세습을 통해 ‘왕조적 전체주의’로 변화되었다고 간주한다. ‘왕조적 전체주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Lim, Jae-Cheon, *Kim Jong Il's Leadership of North Korea*. London: Routledge, 2009, pp. 85-90.

11)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1968; Schapiro, Leonard, *Totalitarianism*. London: The Pall Mall Press, 1972.

이 글에서는 북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그들의 성장 과정과 사상적 기반, 정치적 정당성, 리더십 특성에 주목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리더십을 ‘특정한 환경 하에서 지도자가 자신(혹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지자를 설득하고 동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지도자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지도자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이해도 그들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도자 통치 정당성은 지지자들의 순응과 관련되는데, 지도자는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 과정, 사상, 정치적 정당성과 같은 요인들은 ‘리더십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북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비교하고자 한다.

III. 성장 과정 및 사상적 기반

정치지도자는 공적 영역에서는 ‘정치 행위자’로서 활동하고, 사적 영역에서는 ‘단순한 개인’으로 머무른다. 하지만 터커의 지적처럼, 이 공적 행위자와 사적 개인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도자 개인이 사적 영역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은 끊임없이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¹²⁾ 북한과 같은 일인 중심의 전체주의체제에서는 지도자의 사상이 다른 국가 지도자에 비해 훨씬 더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그의 사상이 어떻게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내용

12) Tucker, Robert, *Politics as Leadership*. Columbia, Missouri: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1, p. 56.

을 구성하는 지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국가지도자로 등극하면 사망할 때까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지도자의 사상이 직접적으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곤 것은 명확하다.

지도자의 사상은 그의 가정환경과 성장 경험을 통해, 그리고 주위 인물들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지도자가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친 "문화적 맥락(cultural context)"을¹³⁾ 잘 이해하는 것이 그의 사상적 기반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는 순전히 개인관계와 관련된 사적 맥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들도 포함한다. 여기에서도 북한 지도자의 사상적 기반을 그들의 가정환경, 정치적 사건, 주변 인물들 등 사회역사적 맥락과 연계시켜 설명하고,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그들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1. 김일성

북한 지도자들은 모두 김일성 가문 출신이지만, 김일성을 비롯한 김정일, 김정은은 각각 성장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김일성은 성장기를 평양과 만주에서 보냈는데, 한 곳에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다. 이러한 그의 '유목민적' 성장기는 그가 다양한 사상적 기반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김일성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보면, 유교적 인간관계·기독교적 가정·민족주의자인 아버지·공산주의의 영향·중국공산당 활동·항일게릴라투쟁·스탈린의 영향 등이다.

먼저 김일성은 강한 유교적 영향 하에 있었던 일제시대 조선 사회에서 태어나고 유년시절을 보냈다는데서 그가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자명하다. 청소년기에는 만주에서 거주했지만 주로 한국인 및 중국인과 교류하면서 개

인관계에서의 유교적 영향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유교에 대한 태도는 해방 이후에는 부정적이었다가, 1970년대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진행되면서 충·효와 같은 유교 가치들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었다.¹⁴⁾

둘째, 기독교적 가정환경도 김일성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1942년 4월 15일 김형직과 강반석 사이에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는—특히 그의 모친은—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도 자서전인 『세기와 더불어』에서 교회에 가곤했다고 기술했다.¹⁵⁾ 일부 연구자들은 김일성주의와 기독교 교리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어린 시절 기독교를 접촉한 경험이 해방 이후 북한 우상숭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¹⁶⁾ 김일성이 자신의 우상숭배를 위해 기독교를 이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주체사상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예를 들면, '혁명적 수령관'의 영생관—적어도 북한 주체사상 이론가들은 지도자 우상화를 위해 기독교 교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도 이러한 종교적 성향을 지닌 자신의 우상화를 거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민족주의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김일성은 생전에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주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의 삶을 추적하면, 민족주의적 활동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가 일제 치하 때 항일빨치산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 보천보전투(1937년)와 무산전투(1939년)를 진행하면서 국내로 진입하고자 했던 사실, 해방 이후 주체사상을 발전시켰다는 사실, 소련 주도의 국제사회주의 분업체제를 거부했다는 사실 등은 그의 사상적 기반에 민족주의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14) 박광호, 『전통: 북한사회 이해의 열쇠』,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4, pp. 348~356.

15)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9, pp. 102~104.

16) Tait, Richard J., "북한 통치술에 내포된 기독교적 교리 이념에 대한 연구." 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3) Stevens, Richard, *Erik Erikson: An Introduc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p. 61.

넷째, 김일성은 공산주의의 영향도 받는데, 만주에 있는 길림 육문중학교(1927-1929년)를 다니면서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공산주의는 김일성의 중요한 인생관이 되는데, 일제 치하 때 간난신고를 겪으면서도 항일빨치산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던 이유도 해방이후 조선에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그의 희망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도 김일성은 공산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아, 그의 사상에 공산주의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다섯째, 중국공산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모택동사상의 영향도 받는다. 김일성은 1931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하는데,¹⁸⁾ 중국공산당원으로 항일게릴라투쟁에 참여하면서 모택동의 인민관, 혁명 전략전술 등을 학습했다. 이러한 모택동사상은 해방 이후 김일성의 전략전술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해방 직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민주기지원, 민주개혁 등은 모택동이 지도하던 중국 혁명 경험을 바탕으로 김일성이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택동의 균중노선(mass line)은 이후 김일성이 현지지도를 제도화시키는데 있어 인식론적 기초가 되었다.¹⁹⁾

여섯째, 항일게릴라투쟁은 김일성의 사고에 군사주의를 깊이 뿌리박히게 만들었다. 군사주의는 김일성이 1930년대 항일게릴라활동을 통해 체화한 것인데, 부조(Adrian Buzo)는 김일성의 게릴라 경험이 그의 세계관에 깊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방 이후 북한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그는 게릴라적 사고의 특성으로 “자립성, 인내, 끝없는 투쟁, 외부인에 대한 불신, 약탈적 폭력, 냉혹함” 등을 들었다.²⁰⁾ 이러한 김일성의 군사주의는 한국전쟁에서 보인 무력에 의한 통일방식, 1960년대 초반에 수립된 4대군

사노선과 경제-국방병진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김일성은 1940년 11월 경 일본 관동군의 공격을 피해 연해주로 도피하면서부터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스탈린주의의 영향은 해방 이후 3년 동안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면서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임명하면서) 절정에 달하였다. 북한에 있어서 스탈린주의 영향은 스탈린식 중공업 우선 정책, 정적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통한 일인 절대권력 구축, 스탈린식 우상화 방식 도입,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와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친스탈린정책 유지 등에서 잘 나타난다. 이 스탈린주의는 김일성의 인식론적 발전에 가장 늦게 나타나는데,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사상이 김일성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와다 하루키는 북한의 정치문화가 “잡종적인 문화적 혼합물”이라고 보았는데,²¹⁾ 이는 앞에서 설명한 김일성의 다양한 사상적 요인들이 정치문화에 깊이 침투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다양한 사상적 기반이 국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투영되었고, 이것이 이후 하나의 복합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김정일

일제 치하 때 평양에서 태어나 만주로 이주하며 성장했던 김일성과는 달리 김정일은 소련에서 출생해 해방 후 입국해 성장기의 대부분을 평양에서 보냈다. 그는 1941년 2월 16일 소련 연해주에서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²²⁾ 김정일은 정치사회적 격동을 겪으면서 유년기를 보냈는데, 그가 5살 때 해방을 맞았고, 동시에 분단되었다. 9살 때는 자신

17) 김일성, 『새기와 더불어8』,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9, pp. 20~39.

18)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4, p. 399.

19) 이관세, 『현지지도를 통해 본 김정일의 리더십』, 서울: 전략과 문화, 2009, pp. 63~69.

20) Buzo, Adrian, *The Guerilla Dynast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9, p. 10.

21) 와다 하루키, 서동만·남기정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1998, p. 132.

22) 북한은 김정일 출생년도가 1942년이라고 주장하나, 필자는 1941년에 태어난 것으로 본다. 김정일 출생지와 출생년도와 관련한 자세한 분석은 Lim, Jae-Cheon, *Kim Jong Il's Leadership of North Korea*, London: Routledge, 2009, pp. 10~11.

의 아버지가 주도했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만주로 피난을 가기도 했다. 한국 전쟁 직전 1949년 김정숙이 사망하면서 김정일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다.

김일성은 청소년기에 만주에서 민족주의, 공산주의를 비롯한 비교적 다양한 사상을 접한 반면, 김정일은 북한 지도자 김일성의 아들로서 사회주의혁명기에 청소년기를 보냈다. 따라서 김일성에 비해 김정일의 사상 형성에 미친 요소들은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김정일의 사상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그의 아버지 김일성 존재 그 자체였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김일성의 다양한 사상적 요소들이 김정일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국가지도자였던 김일성은 이후 김정일이 정치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고, 북한 최고 권력자로서 김일성이 행사하던 절대 권력은 김정일에게 권력 추구 동기를 제공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 김일성에 대한 김정일의 존경은 생각보다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장엽의 회고나 김정일 전기를 보면, 김정일 스스로 김일성의 관심분야와 자신의 관심분야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했었고, 누구보다 김일성에게 충실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²³⁾ 이후 1960년대 중반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신화화(mythicization)했던 것이나,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직후부터 유행했던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도 김일성의 김정일에 대한 영향을 잘 보여준다. 물론 이것은 김일성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권력을 추구해 나갔던 김정일의 권력지향적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자신의 아버지에게 집착했는지도 동시에 보여 준다.

둘째, 김정일이 어렸을 때부터 교류했던 항일게릴라들도 그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연해주에서 태어난 김정일은 주로 항일게릴라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교류하면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했을 것이고, 해방

이후에도 항일게릴라들이 북한 정권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영향은 지속되었다. 예를 들면,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이 일찍 사망하면서, 어린 김정일이 의지했던 사람은 계모 김성애 보다는 부모의 친구이자 동지인 항일게릴라들이었다.²⁴⁾ 게릴라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로부터 들었던 항일 투쟁 일화들은 아동기 김정일에게는 영웅의 무용담으로 들렸을 것이고, 이러한 친게릴라적 사고는 1960년대에 진행된 북한의 군사주의경향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그의 군사친화적 사고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김정일의 군사주의적 사고는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등장한 ‘선군정치’의 인식론적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1950년대 중반 이후 전성기를 구가하던 북한의 ‘현실사회주의’도 김정일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57년부터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천리마운동’은 북한 5개년 경제계획(1957-1961) 목표를 3년 반 만에 달성하게 만들었고, 이 시기 급속한 경제성장은 북한 ‘현실사회주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천리마운동이 부흥하던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를 북한 사회주의의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 사회주의 전성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김정일은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일과 같이 천리마운동 기간 동안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를 보낸 세대를 ‘천리마세대’로 부르는데,²⁵⁾ 이는 그만큼 천리마운동이 북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김일성 사망 후에도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1990년대 후반에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제기하는데,²⁶⁾ 이는 1950년대 ‘천리마 신화’가 김정일의 뇌리에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넷째,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지속되었던 김일성과 정적들 사이의 권력

23)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pp. 126~127; 허담, 『김정일위인상』, 동경: 조선신보사, 1996, pp. 1~155.

24)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김영사, 2000, p. 80.

25) 이찬행,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2001, pp. 201~202.

26)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노동신문』, 1999년 1월 1일.

투쟁도 김정일은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한국전쟁 중 박헌영을 비롯한 ‘국내파’ 제거, 1956년 ‘8월중과사건’, 1967년 5월 ‘갑산과사건’ 등은 모두 권력투쟁(부분적으로는 정책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인데, 이러한 권력투쟁 중의 정치적 긴장은 김정일에게도 직접적으로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김일성은 그의 정적들을 “역적 중의 역적인 반당중과분자들”로 간주했으며, “과리를 때려잡듯이 박멸해버려야” 한다고 믿었는데,²⁷⁾ 이 같은 그의 정적에 대한 태도는 정치적 패배자들에 대한 숙청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귀결되었다. 숙청이라는 징벌적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 그 대상자를 정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듦으로써 정치적 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식이다. 이러한 숙청 방식은 1970년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이후에도 이용되었으며,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은 숙청을 위한 주요 무기로 사용되었다. 즉, 1950년대와 1960년대 김일성의 권력투쟁 방식, 정적들을 다루는 방식, 정치를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보는 관점 등은 그대로 김정일로 이어진 것처럼 보인다.²⁸⁾

마지막으로 주체사상이 성장 과정에서 김정일에게 미친 영향이다. 주체사상은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스탈린 사후 흐루시쵸프의 간섭을 배격하면서 북한 나름대로 대외관계 노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었다. 대내적으로는 김일성이 친소파와 친중파를 제거하고 절대 권력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통치이념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1956년 ‘8월중과사건’에서 김일성 정적들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은 이후에 김일성이 대외적으로 ‘주체’를 강조하는데 있어 전환적인 사건이 되었다. 1950년대 중반 주체사상이 태동하던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고,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통치이념으로 정립되던 1960년

27) 허담, 『김정일위인상』, 동경: 조선신보사, 1996, p. 28.

28)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시대 대표적인 정치적 숙청은 ‘심화조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심화조사건’ 관련 내용은 황일도, “김정일 권력장악 비화, 고문과 처형으로 얼룩진 ‘심화조사건’의 진상.” 『신동아』, 2005년 10월, pp. 120~136.

대 초반에 대학 시절을 보낸 김정일은 자신의 아버지가 제시한 ‘주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은 성장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주로 김일성, 항일계열 라들과 교류하면서 그들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았으며,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의 대내외적인 사건들—사회주의의 발전, 권력투쟁, 주체사상의 형성 등—은 김정일이 최고 권력자 김일성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동 세대들 중 누구보다 민감하게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3. 김정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20대 후반이었던 김정은이 북한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고영희의 둘째 아들로 알려지고 있고, 그의 출생년도도 정확하지 않다. 북한은 김정은의 출생연도를 1982년으로 기록하고 있고,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진 후지모토 겐지에 의하면 1983년,²⁹⁾ 한국의 정보기관은 1984년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가 된지 2년 반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사상적 기반을 추측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김정일의 사상 형성에 김일성이 큰 영향을 행사했다는 데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김정은이 김정일로부터 어떤 사상적 영향을 받았는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김정은의 성장 과정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유사하게 최고 권력자의 자제로서 귀하게 대우받고 성장하였다. 김정일처럼 김정은도 최고 권력자의 자제로서 주로 북한 고위층과 교류하면서 권력에 대해 일찍 눈을 떴을 것이다. 하지만

29) 후지모토 겐지, 한유희 역,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서울: 맥스 미디어, 2010, p. 59.

김정일은 일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가졌지만, 김정은은 철저히 일반 학생들로부터 격리되어 특별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난의 행군’으로 명명된 1990년대 중반에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김정은은 이러한 북한 현실과 유리되어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귀하게 물질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그가 북한 지도자로서 과연 얼마나 북한 주민의 실생활을 잘 알고 있는지 혹은 주민 생활을 진정으로 염려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다만 최고통치자로서 북한 경제를 회생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문제는 김정은에게 중요하다.

둘째,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 중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다. 김정일은 짧은 외국 여행을 제외하고는 외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한 경험이 없는 반면, 김정은은 (정확한 기간은 알기 어렵지만)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스위스 베른에 있는 공립 중학교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다.³⁰⁾ 즉, 김정일은 북한을 떠나 외국에서 수학한 경험이 없는 반면, 김정은은 외국에서,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몇 년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개인이 그가 받은 교육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김정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생활 경험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그의 이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의 전성기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북한의 쇠퇴기에 청소년기를 보냈다. 북한의 경제난이 어린 김정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김정일과는 달리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북한의 쇠퇴기에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사실과 앞에서 설명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생활이 김정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후 그의 리더십과 정책을 통해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은 외국 유학 이후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공부한 것

으로 알려졌는데,³¹⁾ 이 대학에서의 군사교육이 김정은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즉, 김정은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공부한 것으로 미루어 김정일은 김정은을 ‘선군정치’의 후계자로 키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의 군사교육이 김정은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김정일의 군사주의적 사고는 주로 항일유격대원이었던 자신의 부모와 항일게릴라들과의 교류 속에서 형성된 반면, 김정은의 군사주의적 사고는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통해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김정일처럼 최고 권력자의 자제로서 북한 고위관료들과 교류하면서 일찍 정치권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성장 과정에서 북한주민들과 격리된 채 교육을 받았고, 특히, 그의 스위스에서의 생활은 북한과 스위스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든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김정은의 사상형성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역대 지도자 중 공산주의 신념이 가장 약한 지도자라는 것이다. 아동기에 사회주의 권이 붕괴되었고, ‘고난의 행군’ 기간에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게는 공산주의가 더 이상 매력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지 못 할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군사주의’가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상적 요소라는 것이다. 김일성은 직접적으로 항일게릴라투쟁을 통해, 김정일은 항일게릴라들과의 장기적인 교류를 통해 군사적 사고를 갖게 된 반면, 김정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의 교육을 통해 군사주의적 사고를 형성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들이 이후 김정은의 리더십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0)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봄플러스, 2010, p. 48.

31) 위의 책, p. 89.

IV. 정치적 정당성

모든 국가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강한 정치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지지자들이 자신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지도자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자들의 믿음은 안정적인 정치시스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데, 이러한 믿음이 지도자 권위에 대한 순응을 가능하게 만든다.³²⁾ 뛰어난 업적을 쌓은 후 지도자가 된 사람은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과거 업적을 이용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된 이후 뛰어난 업적을 쌓아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이승만은 항일투쟁경험을 지도자가 된 이후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용하였고, 군사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이루어 미약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치 정당성에 대한 이해는 지도자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며, 지도자들의 이미지 형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1. 김일성

김일성은 생전에 자신의 정당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소재들은 위대한 지도자로서 김일성 이미지를 형성하였고 주로 교육과 선전을 통해 주민들의 세계관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이러한 소재들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오래된 소재가 그의 항일게릴라투쟁이었다. 김일성의 항일게릴라투쟁 경력은 그가 '1932년부터 중국공산당 산하 게릴라부대에 참여하여 부대원에서 지휘관으로 성장하면서, 1940년 말 소련으로 도피할 때까지 일본군에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³³⁾

이러한 김일성의 항일게릴라투쟁은 그의 통치 정당성 강화라는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 해방 직후부터 이상화를 통해 재창조되어 왔으며, 이는 북한주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순종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김일성의 게릴라투쟁에 대한 신화화 작업은 항일게릴라투쟁에서의 중국의 역할이나 1940년 이후 소련의 역할 삭제·1941년부터 해방 때까지 김일성 활동 왜곡·조선 해방의 왜곡·조선인민혁명군과 같이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창조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김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³⁴⁾

1960년대를 지나면서 북한은 항일게릴라투쟁 이외에도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건설 경험을 김일성 통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추가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을 미국이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최강의 '미제국주의를 김일성의 지휘아래 타승'했다고 평가하였고, 북한 사회주의를 '인민의 파라다이스'라고 선전하며 김일성의 위대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1950년대 중반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주체사상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보다 체계적인 통치사상으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주체사상의 창시도 김일성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이용되었다.

김일성이 항일게릴라투쟁으로 조선을 해방시켰다는 논리와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북한을 지켜냈다는 논리는 김일성의 '해방자' 혹은 '구원자'로서의 이미지를 형성시켰고, 이러한 이미지들은 결국 모든 북한 제도의 '창조자'로서의 김일성의 이미지로 귀결되었다. 또한 김일성이 사회주의건설의 성공을 통해 인민대중 중심의 지상낙원을 건설했다는 논리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이미지로 이어졌고, 주체사상의 창시는 '위대한 사상가'로서의 김

32) Easton, David,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p. 279.

33)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3~54.

34) 김일성 항일게릴라투쟁에 대한 북한의 신화화 연구는 서재진,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일성의 이미지와 연결되었다.

이러한 김일성의 대내적 활동 이외에 대외적 활동도 그의 정당성 강화를 위한 소재로 이용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주의운동과 비동맹운동의 지도자'로서의 김일성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중·소분쟁 과정에서의 김일성 활동,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김일성의 비동맹외교 활동 등을 이용하였다.

2. 김정일

북한은 김일성의 주요한 통치 정당성을 그가 '민족의 구원자'로서 북한을 창시했다는 것에서 찾고 있는 반면, 김정일의 통치 정당성은 그가 김일성의 업적을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잘 계승했다는 데서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정일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소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명전통의 계승자'로서 김정일의 위대성이다. 북한에서 혁명전통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모든 업적과 관련이 있는데, 그 기원을 김일성의 '타도제국주의동맹' 창시(1926년)로부터 찾고 있다. 북한에서 후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김일성 수령이 개척한 혁명전통을 얼마나 잘 계승하느냐와 관련이 있는데, 이 혁명전통 계승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가치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³⁵⁾ 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대부분의 김정일 전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가치이다. 실제로 김정일은 1967년 갑산파사건 이후 선전선동부에서 일하면서 혁명전통 계승을 위해 김일성 항일투쟁을 신화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그의 김일성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이후 그가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는데 유리한 배경이 되었다.

둘째, '위대한 가문의 계승자'로서 김정일도 권력승계에 있어 정당성을 제 공하는데 중요한 논리로 이용되었다. 북한에서 김일성 가문은 "진정으로 애국

적이며 혁명적인 가문,"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혁명일가," "대를 이어가며 참된 혁명가들이 배출된 명문"으로 간주된다.³⁶⁾ 이 '위대한 가문' 논리는 김정일이 가문의 위대한 '주체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논리로 1970년대부터 진행된 권력승계를 정당화했다. 이러한 혈통을 강조하는 전근 대적인 논리를 외부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당시 김일성에 대한 극단적인 우상화가 생활화되어 있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1970-80년대에 진행된 김일성-김정일 권력승습이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른다.

셋째, '사상의 계승자'로서 김정일의 위대성이다. 이 논리는 주체사상 발전 과 관련이 있는데, (북한은 주체사상을 김일성이 항일투쟁과정에서 창시하였 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 '사상의 계승자' 논리는 부분적으로 '혁명전통의 계승자' 논리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 비중이 있어서 독자적 중요성을 지닌다 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1974년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된 이후 북한에 의해 발표되는 모든 주체사상 관련 중요 저작들이 그의 이름으로 발표 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김정일 스스로 김일성 '권력의 승계자'일 뿐 아니라 '사상의 계승자'가 되길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김정일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시킨 요소는 '선군'의 계승자로서 김정일 업적이다. 김정일이 1990년대 중반부터 채택해 오던 '선군정치'는 분명히 김일성 시대의 정책과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정일의 선군 정치 기원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으로부터 찾고 있다.³⁷⁾ 즉, 북한은 독자 적인 김정일 선군정치조차도 김일성 군사전략의 창조적 계승으로 간주하며 두 사람 사이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선군정치의 기여를 다음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0년대 미국 부시 정부의 '테러에 대한 전쟁' 공세로부터 자주권을 지켜낸 것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든 것이 그것이다.³⁸⁾

36) 위의 책, pp. 16, 19, 20.

37)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p. 21~22.

38) 편집부, 『선군태양 김정일장군4』, 평양: 평양출판사, 2007, p. 591.

35) 한계만, 『김정일: 인간·사상·평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4, p. 62.

3. 김정은

북한 지도자의 정치적 정당성 논리는 그의 전기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북한이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전기를 이미 편찬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010년 9월 조선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북한이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를 공식화하기 전부터 이미 권력승계 정당성 논리를 준비했다는 것이다.³⁹⁾

2010년 9월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 공식화 전에 김정은 업적과 관련하여 북한이 만든 정당성 논리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김정은이 북한의 '컴퓨터 수치제어(Computer Numerical Control: CNC)' 시스템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CNC기술을 공작기계에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CNC는 북한에서 '첨단기술'을 상징한다. 즉, 김정은이라는 후계자의 등장을 새로운 첨단기술 등장과 연계시키면서 김정은의 '신선함'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은이 이 CNC 기술을 이용하여 "축포의 예술화, 정형화, 자동화"를 이루어 내어 북한 축포 기술을 "세계적인 기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⁴⁰⁾ 셋째,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도 김정은의 군지도자로서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⁴¹⁾

하지만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김정은이 김일성 가문의 혈통이라는 것이다.⁴²⁾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김정일 정당성 논리들

중 '위대한 가문의 계승자' 논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김정일과 그의 참모들이 김정은이 20대 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와 짧은 경력에 대한 내부의 우려와 반대를 '김일성 혈통' 논리로 돌파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혈통' 논리는 장기적인 김일성-김정일 우상화가 만들어낸 제도적 논리인데, 이러한 제도적 논리로서의 '혈통' 논리는 사상교육을 통해 주민들에게 내재화됨으로써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했을 것으로 보인다.⁴³⁾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은 2012년 12월 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핵실험 성공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로켓 발사 성공은 김정은만의 업적으로 선전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생전에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륙간탄도탄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로켓실험은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 김정은은 로켓 발사 성공을 통해 아버지와 구별되는 그 자신만의 업적을 구축했다고 선전할 수 있고,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의 미사일 탑재 기술을 통해 군사 분야에서 김정은 정당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 과정은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북한이 김정일의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논리를 개발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반면,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김정은의 정치적 정당성은 아직 빈곤해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김정은의 정당성 구축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경제난이다. 지도자로서 경제난을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꾀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에 대한 정당성 선전 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39) 정영철,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과제: 인격적 리더십의 구축과 인민생활 향상,"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2012, p. 6.

40)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 논리와 징후," 『통일문제연구』 제53호, 2010년 상반기, pp. 107~108; "北 CNC 표현, '김정은=첨단기술 소유' 상징조작," 『데일리NK』 (온라인), 2010년 8월 5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5000&num=85810> (검색일: 2014년 5월 23일).

41) "무산군에 천안함 까부순 영웅 해군 나왔다," 『데일리NK』 (온라인), 2012년 3월 26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94676> (검색일: 2014년 5월 23일).

42) 윤황,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우상화 실태에 관한 분석," 『북한학보』 제38집 2호, 2013, pp. 44~77; 김창희, "김정은 체제 권력구조와 정치행태 분석," 『통일전략』 제13권 제1호, 2013, pp. 104~107.

43) Lim, Jae-Cheon and Ho-Yeol Yoo,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ult of the Kims: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political success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3, 2010, pp. 341~354.

V. 리더십 특징

북한 지도자들은 한 번 지도자로 등극하면,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도자로 남는다. 그들은 장기간 지도자 직책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리더십 특징들을 보이는데, 이는 하나의 리더십 개념으로 그들의 행태를 설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서는 북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원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그들의 성장 과정, 사상, 정치적 정당성, 그리고 지도자가 된 이후 행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리더십 특성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김일성

김일성이라는 지도자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김일성은 자수성가형 지도자였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평범한 농민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 독실한 기독교 인이자 교육자인 강돈욱의 딸로서, 그녀 집안은 그 당시 중산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김형직은 김일성이 15살(1926년)에 사망하였고, 강반석은 그의 나이 21살(1932년)에 사망한다. 그 이후 김일성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일게릴라투쟁을 거쳐 결국에는 북한의 지도자로 등극하게 된다. 물론 소련의 지지로 북한 지도자가 되었지만, 정적들의 도전을 하나하나 물리쳐 결국에는 절대 권력을 구축한 것을 보면 김일성은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그는 강한 권력의지(will to power)를 갖고 있었다. 정치권력을 획득했던 모든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강한 권력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김일성의 권력의지는 특히 두드러졌다. 이는 그의 권력독점욕과 관련이

있는데, 그의 권력독점욕은 세 가지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첫째가 유일사상 체계 수립을 명분으로 한 절대 권력의 수립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적들에 대한 숙청, 주민들에 대한 감시체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통해 북한 사회에서 어떠한 정치적 반대 혹은 정책적 비판도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들었고, 그의 '교시'만이 유일한 진리로서 주민들의 사고를 지배했다. 둘째는 자신에 대한 이상화이다. 김일성에 대한 극단적인 이상화는 그를 신적인 존재로 만듦으로써 무한한 존경 속에 살게 했다. 그는 정치적 반대자를 완전히 숙청한 후에야, 그리고 주민들이 (다른 정치지도자가 아닌 오직) 그에 게만 무조건적으로 순종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위상에 만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권력세습을 택해 정치권력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자신의 절대적 위상이 사후에도 유지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사후에도 아들을 통해 자신의 절대적 위상을 유지하며 주민들의 숭배를 받고자 했다는 점에서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의지는 두드러진다.

셋째, 그는 정치를 '제로섬(zero-sum) 게임' 관점에서 보았던 지도자이다. 이는 그가 정적들에게 행한 대규모 숙청 사례들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권력 투쟁 혹은 정책적 경쟁을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혹은 '승자 독식(The winner takes all)'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관점은 그가 항일게릴라투쟁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스탈린의 권력투쟁 경험으로부터도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약 9년간(1932-1940년)의 게릴라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극단적인 전투상황에 몰림으로써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사고가 체득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스탈린이 정적을 다루었던 경험으로부터도 배우면서 이후 북한에서의 정치 게임에서 '제로섬 룰'을 그대로 적용했다. 김정일 시대에도 이 제로섬 게임 룰은 북한 정치에서 일반화되었다.

넷째, 김일성은 1960년대까지 번즈(James M. Burns)가 말한 변형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특히, 혁명적 리더십(revolutionary leader

ship)의 특성을 보인다.⁴⁴⁾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에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집단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주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급진적 개혁을 통해 사회를 개조하였다는 점에서 변형적 리더십의 양태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권력세습을 진행하면서 충·효같은 전통적 가치들을 확산시키면 변형적 리더십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80년대에는 사회주의권 몰락과 같은 대외적 변화압력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김일성의 리더십에는 플라톤(Plato)이 말한 ‘철인왕(philosopher-king) 리더십’ 특성도 보인다.⁴⁵⁾ 김일성의 ‘철인적’ 리더십은 그가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이 만든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국가를 통치하고자 했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 국가지도자들 가운데 장기권력을 독점한 독재자는 많았지만, 체계적인 통치사상을 발전시킨 지도자는 많지 않았다. 김일성 스스로 맑스와 레닌, 모택동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황장엽이라는 사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김일성의 리더십에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요소가 ‘군사주의’이다. 이 ‘군사주의적’ 리더십은 만주에서의 게릴라투쟁 경험과 소련에서의 정규군 훈련을 통해 체화된 군사주의적 사고로부터 기인된다. 그의 군사주의가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1950년대에는 6·25전쟁에서, 1960년대에는 ‘4대군사노선’과 ‘경제-국방병진노선’ 채택에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모든 사회조직을 군대식으로 조직했다거나, 국가정책 용어와 주민들 생활용어 중

44) Burns, James M.,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8, pp. 201~254.
45) 플라톤은 그의 저서 『공화국(Republic)』에서 이상적인 통치자를 철인(philosopher)로 보았는데, 철인은 현명하고 완벽한 지식의 소유자로 간주되었다. Rejai, Mostafa and Kay Phillips, *Concepts of Leadership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2002, pp. 11~16. 플라톤이 말한 『공화국』은 권력이 분산된 민주정체라기 보다는 철인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된 ‘철인독재체제’에 가깝다. 주체사상에서 설명하는 ‘수령’은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왕(philosopher-king)’과 유사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군사용어가 상당수 발견되는데, 이 모든 것은 김일성의 군사주의로부터 기인된다. 이는 김일성이 일상적으로 군사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며, 이것이 그대로 북한 정책용어나 생활용어로 수용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일성은 북한 선전에서 주로 카리스마적(charismatic) 이미지로 조작된다. 베버(Max Weber)는 정치적 정당성을 분석하면서 카리스마(charisma)를 개인이 지닌 초인적 혹은 특별한 자질로 간주하였는데, 이러한 자질을 지닌 개인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기적’ 혹은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킴으로써 주위 사람들의 숭배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⁴⁶⁾ 북한의 선전에서 강조되는 이미지들—예를 들면, 김일성이 항일게릴라투쟁을 통해 조선을 해방했다는 주장, 한국전쟁에서 세계 최강의 미국의 침략을 막아냈다는 주장 등—은 그의 ‘해방자·구원자’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초인적인 김일성의 자질을 조작하는 데 이용된다. 비록 조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카리스마적 이미지는 그의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교양을 통해 북한주민들 사고 속에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이미지는 깊게 자리 잡히고, 실제로 주민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2. 김정일

김정일이라는 인물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스타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김일성이 자수성가형 지도자라면 김정일은 상대적으로 ‘왕자’처럼 대우받고 성장한 지도자이다. 절대 권력자였던 아버지의 보호 아래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게, 사회정치적 특권을 누리면서 성장하였다. 유년기부터 그가 원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든 지 얻을 수 있었고,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을 대부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계자 시절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던 벤츠, 코냐크, 상어

46) Weber, Max, A. 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trans.,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47, pp. 358~359.

지느러미, 고가의 가구와 가전제품 등의 사치품을 보아도 그가 성장할 때부터 물질적 풍요 속에 귀하게 대접받고 자랐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⁴⁷⁾ 즉, 김정일은 김일성과는 달리 귀족적인 취향을 지닌 지도자이다.

둘째, 김일성과 유사하게 김정일도 강한 권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절대 권력자인 아버지의 영향 아래 동 세대 누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권력경쟁에 나섰지만, 김정일 스스로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였던 계모 김성애 때문에)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북한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김정일은 일찍부터 강한 권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데, 황장엽은 10대 후반 김정일을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이미 정권에 대한 욕망이 상당히 컸다”⁴⁸⁾ 평가했다. 김정일이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조직담당 비서, 선전담당 비서, 조직지도부장, 선전선동부장 등 4개의 직책을 동시에 맡은 이후 통제지향적인 ‘유일지도체제’ 구축을 통해 권력을 확장해 나간 것을 보아도 그가 강한 권력욕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⁹⁾

셋째, 김정일의 정치적 정당성을 형성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김일성의 충실한 계승자’로서의 이미지인데, 이는 김정일 리더십의 ‘전통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만든다. 이는 후계자가 되기 전 김정일이 김일성의 항일게릴라투쟁을 핵으로 하는 ‘혁명전동’ 확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강화하였고, 후계자가 된 이후에도 김일성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징표로 강조하였다. 또한 김일성 사후 북한을 통치하면서도 항상 김일성의 유훈을 언급하면서 “언제나 자신을 수령님의 전사로 생각”하였음을⁵⁰⁾

강조하였다. 이는 ‘해방자·구원자’의 카리스마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김일성과는 다른 이미지이다. 김일성의 전통을 신성시하며, 자신의 권위를 김일성의 권위 내에서만 행사하고자 했던 김정일의 이미지는 베버가 말한 전통적 리더십(traditional leadership)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⁵¹⁾ 이러한 김정일의 전통적 리더십은 그가 보수적인 성격의 지도자로서 김일성의 정통 계승자임을 주장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새로운 개혁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했다.

넷째, 김정일로부터는 ‘예술가적(artistic) 군주’의 자질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이 1960년대 중반 당 선전선동부에서 일하면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는 당시 영화·가극·연극·음악·건축 등 대부분의 문예 작품 창작에 관여하면서 자신의 예술가적 자질을 펼쳤다. 『영화예술론』(1973), 『주체문학론』(1992) 등 모든 북한 문예 관련 이론서들은 김정일의 이름으로 출판되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문예 분야의 권위자가 되기를 원했는지 잘 말해 준다. 김정일의 ‘예술가적 군주’ 성향은 그의 ‘음악정치’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음악정치는 ‘예술’과 ‘정치’를 결합한 사례로써 김정일이 2000년대에 음악을 선전선동의 중심매체로 선전하면서 북한에서 유행한 용어이다.⁵²⁾ 이러한 ‘예술가적’ 스타일은 김일성의 스타일과 뚜렷이 구별되는 김정일 고유의 리더십 스타일이다.

다섯째, 김일성과 유사하게 김정일에게도 ‘철인적’ 스타일이 발견된다. 이는 ‘사상의 계승자’로서 김정일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데, 그가 후계자가 된 이후 주체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노력들에서 두드러진다. 주체사상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주체사상연구소(1979) 설립을 주도하였고, 『주

47) 최은희·신상욱, 『내래 김정일입니다』 상·하, 서울: 행림출판, 1994; 후지모토 겐지, 신현호 역, 『김정일의 요리사』, 서울: 월간조선사, 2003.

48)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p. 126.

49) 김정일은 1985년 선전선동부장직을, 1992년 선전담당비서직을 각각 김기남에게 인계하였는데, 조직지도부장직과 조직비서직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북한 주요 인사 인물정보』, 서울: 통일부, 2012, pp. 67~68.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장직도 김정일이 장기간 겸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50)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1994년 10월 16일).” 『김정일선집13』, 조선노동당출판사, 1998, p. 430.

51) Weber, Max, A. 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trans.,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47, pp. 341~343. 여기서 김정일이 ‘전통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의 리더십에서 카리스마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령의 ‘계승자’로서 ‘전통적’ 성격이 훨씬 두드러진다는 의미이다.

52) 전영선, “김정일 시대 통치스타일로서 ‘음악정치.’” 『북한 예술의 창작지형과 21세기 트랜드』, 역락, 2009, pp. 277~306.

체사상에 대하여』(1982) 등 다양한 주체사상 관련 문헌들도 그의 이름으로 출판된다. 이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된 이후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은 김정일이 독점하였다. 특히 ‘혁명적 수령관’(1986)은 김정일이 주도하여 만든 이론인데, 이는 주체사상을 강한 종교적 성격을 띤 사상으로 변질시켰다. 이 ‘철인적’ 스타일은 그가 ‘선군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선군사상’에서도 나타난다.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한 독점, 선군사상의 창시 등은 그의 리더십에서 ‘철인적’ 성격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여섯째, 김정일의 리더십에서도 김일성과 유사하게 ‘군사주의’ 스타일이 드러난다. 그의 ‘군사주의’ 스타일은 ‘선군정치’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1990년대 중반 북한이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김정일은 군대를 동원하면서 정권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권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가 어떻게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선군정치 사례는 1980년대 후반 동구권이 붕괴되고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체결했을 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안보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던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김정일은 직업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경험도 군대에서 복무한 경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군사주의 사고를 갖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의 부모와 항일게릴라들의 영향, 그리고 군사주의적 사회분위기에서 기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 김정일의 업무 추진 방식에서 강하게 나타났던 스타일은 ‘속도전’적 방식이다. 물론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기 전에도 ‘속도’라는 용어는 ‘천리마 속도,’ ‘평양속도’ 등의 북한 경제구호에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 ‘속도전’ 개념은 1974년 2월 김일성의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김정일이 체계화시킨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³⁾ 이 개념은 후계자가 된 이후에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하고자했던

김정일의 욕구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의하면 이 개념은 김정일이 1960년대 문학예술분야를 지도하면서 창조하였고, 이후 여러 분야로 확대 적용되었다고 한다. 김정일은 이 개념을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⁵⁴⁾으로 정의하였는데, 김정일 전기에는 이 ‘속도전’ 방식이 그의 “기질”과 “개성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⁵⁵⁾ ‘속도전’이 김정일의 어떤 성향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진 않으나, 이 개념은 북한이 추진한 다양한 경제동원캠페인들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이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에도 중요한 정책추진 원칙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정일의 리더십에서 강하게 나타났던 것은 ‘은밀성(confidentiality)’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는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은둔적인 지도자였다. 이 ‘은밀성’은 그의 대내외 활동에서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김일성에 비해 김정일이 외국 방문 횟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 사절 접견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또한 대외적 은밀성은 외국 외교 사절을 만날 때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나 그 자신이 외국을 방문할 때 극비리에 방문하는 형태로 나타났다.⁵⁶⁾ 대내적으로는 그가 현지도할 때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사후에 공개한다든지, 그와 가족관련 사적 정보는 극비로 분류한다든지 등이 은밀성의 사례이다. 의사결정방식에 있어서도 공식 라인보다는 비공식 라인을 선호한다든지, 다수보다는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을 선호한다든지 등으로 은밀한 스타일을 드러냈다. 그가 은밀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보안을 위해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동시에 극적인 효과도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리더십에 있어서 김정일은 김일성과 유사한 측면도 있었고 구

54) 위의 논문, p. 32.

55) 탁진·김강일·박홍제, 『김정일 지도자 제2부』, 도쿄: 동방사, 1984, pp. 122~123.

56) 예를 들면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순안공항에 김정일이 예고 없이 나타났던 사례나, 중국이나 소련을 방문할 때 예고 없이 갔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53) 김정일,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년 2월 19일).” 『김정일선집4』, 조선노동당출판사, 1994, pp. 32~40.

별되는 독특한 측면도 있었다. 강한 권력의지, 군사주의 스타일, ‘철인적’ 스타일은 김일성과 유사한 측면이고, ‘귀족적’ 취향, ‘전통’지향적 스타일, ‘예술가적’ 스타일, ‘속도전,’ 강한 ‘은밀성’은 김일성보다 김정일에게 더 강하게 표출되는 특징들이다.

3. 김정은

김정은의 리더십 관련해서는 그가 권력을 승계한 지 2년 반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그의 리더십 특성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언론에 비친 김정은의 행태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그의 리더십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김정은 리더십은 두 가지 점에서 김일성 리더십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외모, 말투, 행동에 있어서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과의 유사성을 통해 ‘김일성의 화신’으로서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은밀성’을 강조했던 김정일과는 달리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한다든지, 현지지도에서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접촉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은 김정일과는 많이 다르며 김일성과 유사하다. 이것은 ‘백두혈통’의 유사성을 통해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이미지를 김정은에게 전이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권력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김일성과 유사하게 당을 정책결정의 중심 조직으로 이용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는 당 정치국이나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중요한 정책들이 수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일성 시대와 유사하며, 비공식 회합을 통해 정책을 결정한 김정일 시대와는 많이 다른 점이다.

둘째, 김정은에게도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나타났던 ‘군사주의적’ 리더십이 나타난다. 정권 출범 이후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년), 제3차 핵실

험과 ‘경제·핵 병진노선’의 채택(2013년), 2014년에 있었던 다수의 미사일 발사 사례들은 ‘선군’지도자로서의 그의 이미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선군리더십의 강화는 대내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측면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주변국들에게 있어서는 안보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김정일 리더십에 나타났던 ‘속도’가 김정은 리더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는 ‘마식령속도,’ ‘조선속도’ 등의 용어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용어들에서 김정은의 ‘속도전적’ 리더십을 읽을 수 있다. ‘마식령속도’는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조선속도’는 올해 ‘1월 8일 수산사업소’ 건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이다.⁵⁷⁾ 김정일이 1974년 ‘속도전’ 개념을 발전시킬 때와 유사하게, 김정은도 짧은 시간 내에 큰 성과를 냄으로써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속도전’ 원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리더십에서 ‘실용적’ 성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며, 이후 이러한 실용적 성격은 김일성/김정일 리더십에서 보다 김정은 리더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시장친화적인 ‘6·28경제개선 조치’나 2013년 하반기에 발표된 ‘신의주 경제특구 및 13개 경제개발구’ 관련 조치들은 경제 분야에서 드러난 김정은 리더십의 실용적 성격을 반영한다. 물론 이러한 실용적 성격이 김정은에게서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다. 김정일의 실용적 리더십 성격은 2000년대 북한 경제개혁을 뒷받침했던 ‘실리 사회주의’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실리 사회주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반시장적 조치들과 함께 좌초되었는데,⁵⁸⁾ 이는 기본적으로 김정일 리더십에서 실용적 성격은 부차적이었고 이데올로기적/보수적인 성격이 주였음을 알

57) “전체 근로자들이여,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폭풍쳐 나가자.” 『노동신문』 2014년 5월 1일.

58) 김근식, “북한 ‘실리 사회주의’의 추진과 좌절: 북한 변화에의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2호, 2010, pp. 1~20.

수 있다. 낙관적인 사회주의적 시대적 배경과 한국전쟁 후 반미적인 사회분위 기에서 성장한 김정일을 고려하면, 그의 리더십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적/보수적인 성격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사회주의 몰락·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역대 다른 북한지도자들 보다 강한 실용적 리더십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의 이미지 형성은 김정일 보다는 김일성의 이미지를 따르고 있고, 또한 백두혈통 강조를 통한 전통적 리더십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사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의 전통은 김정은 리더십에서도 나타나며, 김정일 리더십에서 강조되었던 ‘속도전’은 김정은 리더십에서도 나타난다. 성장과정과 사상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후에 김정은의 리더십에서 김일성/김정일 리더십에서보다 실용적 성격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북한 언론에서는 지도자를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서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북한 지도자의 절대적 위상을 잘 반영한다. 이 절대적 위상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 김일성 우상화가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인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 절대적 위상은 지도자 상징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북한에서 지도자 상징은 다른 상징들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 북한에서 지도자 상징은 국가 상징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종교적 상징처럼 신성시되며 훼손될 때에는 엄벌에 처해진다.

북한과 같은 절대 권력을 지닌 지도자가 통치하는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가—즉,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가—가 국가 정책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북한처럼 정치적 견제와 균형이 부재하고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국가를 지도할 때,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어렵고 정책교정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무오류의 ‘수령’과 그 후계자가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를 인정한다면 지도자는 평범한 ‘인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정도는 지도자가 갖고 있는 권력 의지의 정치적 반영이라고 간주한다. 김일성은 지도자가 된 후 자신의 정적들이 공격 영역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숙청에 숙청을 거듭하면서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또한 권력이 자신의 손에 독점되면 될수록 우상화는 강화되었다.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은 권력세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의 권력세습에 대한 (대내외적 불가피성 등) 다양한 옹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주의국가와는 달리 김일성이 권력세습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건설해 온 국가가 사후에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이 기대했듯이 사후에 김정은은 김일성을 ‘조선 사회주의의 시조’로 추앙했고, 그의 아버지가 구축했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김정일 자신도 셋째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선택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리더십을 ‘특정한 환경 하에서 지도자가 자신(혹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지자를 설득하고 동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한다면,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되어 김정일로, 다시 김정은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한 리더십에서 유사성과 상이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세 지도자의 리더십에 있어서 ‘군사주의’ 리더십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게릴라투쟁이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다시 김정은의 ‘선군’ 리더십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리더십 요소는 ‘철인적’

리더십이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이라는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였으며, 김정일도 후계자가 된 이후 주체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김일성 사상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였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자신의 선군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발전시킨 ‘선군사상’도 그의 ‘철인적’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가적’ 리더십은 김정일에게만 강하게 나타나며, 김일성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김정은의 경우는 아직 ‘철인적’ 리더십이나 ‘예술가적’ 리더십이 명확하지 않다.

김일성과 김정은에게 있어서도 공통점은 나타나는데, 양자의 이미지와 정책결정 스타일이 유사하다. 김정은이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말투·행태에 있어서 양자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공식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김정은은 김일성과 유사하게 당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비공식 모임을 통해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던 김정일 리더십 스타일과는 다르다.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리더십 특징은 ‘속도전적’ 성격과 ‘전통적’ 성격이다. 먼저 ‘속도전적’ 성격은 단시간 내에 업적을 쌓음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적’ 성격은 김정일과 김정은 모두 자신들의 정당성을 김일성의 권위로부터 찾고 있다는 데서 기인될 것이다. 김정일의 경우는 후계자가 되기 전부터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강조했다. 이러한 경향은 후계자가 된 이후에도 이어졌고, 김일성 사망이후 자신이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한마디로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를 높이면서, 자신의 권위도 강화하였다. 김정은도 자신의 정당성을 백두혈통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리더십에서 전통적 성격이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 김정은 리더십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크게 네 가지이다. 전통적, 군사주의적, 실용적, 속도전적 성격이 그것이다. 그

럼, 이러한 리더십 특징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먼저 ‘전통적’ 성격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은의 경우는 김정일의 경우와는 조금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김정은의 경우는 자신의 권력이 안착될 때까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전통 계승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권력이 안착된 이후에는 김정은 리더십에서 전통적 성격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장기간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김일성의 ‘혁명 승계’로부터 찾아 왔다는 점에서 ‘전통적’ 리더십이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끌어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반면, 김정은의 경우는 후계 구축 기간이 짧아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또한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은 통치 정당성 강화를 위한 대내적 경제재건에 대한 압력이 훨씬 크다. 대외적으로도 김정일 사후 북한의 외교관계가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좋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점도 김정은 리더십에서 전통적 성격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의 압력은 이후 김정은 리더십에 실용적 성격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 재건에 대한 환경의 압력, 대외관계의 악화, 성장과정에서 겪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경험, 자본주의국가에서의 생활 등이 결합되어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 중 가장 실용적인 리더십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실용적 리더십은 김정은의 권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김정일 시대 권력엘리트들이 점진적으로 퇴장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정일 리더십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김정은의 실용적 리더십은 군사주의적 리더십과는 갈등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선군 리더십이 강화될수록 실용적 리더십은 제약될 가능성이 높고, 선군 리더십이 약화될수록 실용적 리더십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군사주의의 강조는 대내 경제 발전과 대외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실용주의의 강조는 경제와 대외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 북한이 김정은의 선군 리더십과 실용적 리더십의 갈등관계를 피하고 선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김정은의 정책적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통치 정당성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속도전적’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김정일 리더십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속도전적 건설은 단기적 경제성과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2014년 5월 평양 아파트 붕괴사건처럼 속도전적 건설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인 부실시공은 민심이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에 이미 실패로 귀결된 산출위주의 ‘속도전적’ 리더십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절차와 과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스타일의 지도자를 원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경제 발전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김정은 리더십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군사주의적, 실용적, 속도전적 특징들은 그의 리더십의 일부뿐이며, 이후 권력 강화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 특징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리더십 형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의 국가발전 ‘비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김정은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참고문헌

-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 논리와 징후.” 『통일문제연구』 제53호, 2010년 상반기.
-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 2014.
- 김근식, “북한 ‘실리 사회주의’의 추진과 좌절: 북한 변화에의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2호, 2010.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1-8』,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9.
-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8』,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8.
-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1994년 10월 16일).” 『김정일선집13』,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8.
- “무산군에 찬안함 까부순 영웅 해군 나왔다.” 『테일리NK』 (온라인), 2012년 3월 26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94676> (검색일: 2014년 5월 23일).
- 김창희, “김정은 체제 권력구조와 정치행태 분석.” 『통일전략』 제13권 제1호, 2013.
-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박광호, 『전통: 북한사회 이해의 열쇠』,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4.
- 서제진,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노동신문』 1999년 1월 1일.
- “北 CNC 표현, ‘김정은=첨단기술 소유’ 상징조작.” 『테일리NK』 (온라인), 2010년 8월 5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5000&num=85810> (검색일: 2014년 5월 23일).
- 전영선, “김정일 시대 통치스타일로서 ‘음악정치’.” 『북한 예술의 창작지형과 21세기 트랜드』, 서울: 역락, 2009.
- 정성장,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와 성격.”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2호, 1999.
-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연구』, 서울: 선인, 2005.
- 정영철,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과제: 인격적 리더십의 구축과 인민생활 향상.”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2012.
-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김영사, 2000.
-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평양: 문예출판사, 1991.

- 윤황,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이상화 실태에 관한 분석.” 『북한학보』 제38집 2호, 2013년, pp. 44~77.
- 와다 하루키, 서동만·남기정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1998.
- 이관세, 『현지도도를 통해 본 김정일의 리더십』, 서울: 전략과 문화, 2009.
- 이승열,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 수령체제의 전환 방향: 엘리트의 정책선택을 중심으로.” 『전환기 한반도 정치경제의 동학: 구상·정책·실천』,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발표논문 집(2012년 12월 19일).
-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품플러스, 2010.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4.
- 이찬행,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2001.
-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북한연구방법론』, 경남대 북한대학원편. 서울: 한울, 2003.
- 최은희·신상옥, 『내레 김정일입네다』 상·하, 서울: 행림출판, 1994.
- 편집부, 『선군태양 김정일장군4』, 평양: 평양출판사, 2007.
- 통일부,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서울: 통일부, 2012.
- 한재만, 『김정일: 인간·사상·령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4.
- 허담, 『김정일위인상』, 동경: 조선신보사, 1996.
- 후지모토 겐지, 신현호 역, 『김정일의 요리사』, 서울: 월간조선사, 2003.
- 후지모토 겐지, 한유희 역,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서울: 맥스 미디어, 2010.
- 황일도, “김정일 권력장악 비화, 고문과 처형으로 얼룩진 ‘심화조 사건’의 진상.” 『신동아』, 2005년 10월.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 Tait, Richard J., “북한 통치술에 내포된 기독교적 교리 이념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1968.
- Burns, James M.,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8.
- Buzo, Adrian, *The Guerilla Dynast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9.

- Easton, David,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 Lim, Jae-Cheon and Ho-Yeol Yoo,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ult of the Kims: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political success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3, 2010.
- Lim, Jae-Cheon, *Kim Jong Il's Leadership of North Korea*. London: Routledge, 2009.
- Lim, Jae-Cheon, “North Korea's Hereditary Succession: Comparing Two Key Transitions in the DPRK.” *Asian Survey*, vol. 52, no. 3, 2012.
- McCauley, Cynthia D., “Successful and Unsuccessful Leadership.” In John Antonakis, Anna T. Cianciolo, and Robert J. Sternberg, eds. *The Nature of Leadership*.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04.
- Rejai, Mostafa and Kay Phillips, *Concepts of Leadership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2002.
- Sadler, Philip, *Leadership*. 2nd ed. London: Kogan Page, 2003.
- Schapiro, Leonard, *Totalitarianism*. London: The Pall Mall Press, 1972.
- Stevens, Richard, *Erik Erikson: An Introduc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Tucker, Robert C., *Politics as Leadership*. Columbia, Missouri: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1.
- Weber, Max,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 A. 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47.

ABSTRACT

Comparing Three North Korean Leaders
: Their Growth and Thoughts, Political Legitimacy, and Leadership
Characteristics

Lim, Jae-Cheon(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compares three North Korean leaders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by focusing on their growth, thoughts, political legitimacy and leadership characteristics. Since its founding in 1948, North Korea has been ruled by the Kim family. After Kim Il Sung and Kim Jong Il, Kim Jong Un is the third leader of the state. The leaders have been the crux of social unity and are described in terms of "the highest national dignity" in the media. In a totalitarian society without political checks and balances, they have almost monopolized decision-making. Under the highly centralized decision-making system, regardless of their relative triviality or importance, their decisions affec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If we define leadership as a leader's activity of influencing followers to achieve goal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we need to know about his or her growth, thoughts, and political legitimacy in order to figure out his or her leadership. Comparing the North Korean leaders is not only helpful in clarify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ir leadership, but also valuable in understanding policy implications of the incumbent Kim Jong Un regime.

Keywords : Kim Il Sung, Kim Jong Il, Kim Jong Un, North Korea, leadership

투고일: 2014년 6월 27일, 심사일: 2014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4일